

SK케미칼, 내진보강공법 개발 신기술 인증

SK케미칼은 희상리인포스와 공동으로 지진 피해를 줄이는 첨단 건축 보강재를 활용한 내진보강공법을 개발해 소방방재청의 <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인증>을 획득했다고 10월23일 발표했다.

SK케미칼은 “국내 전체 내진 대상 건물의 80% 이상이 내진 설계를 채택하지 않아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신 공법의 시장규모는 수십조원에 이를 것”이라고 기대했다.

국내에는 2001-07년 지진발생 횟수가 1980년대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지진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.

<자연재해저감 신기술 인증>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국내개발 기술을 정부에서 공인해주는 제도로 현재까지 3개 기술만이 정부의 인정을 받았을 정도로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.

<화학저널 2008/10/23>